문.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 ③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정답] ③ 좋았는지 경험을 묻고 있음.

[정답해설] '-데'에서 '더'라는 형태소가 분석되는데 이 형태소는 예부터 회상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선어말 어미)였고, 그 기능이 그대로 '-데'에 반영된 것이다. 한편 '-대'는 '다(고) 해'의 준말이다. '다(고)에서 '고'가 탈락하고 남은 '다'에 '해'에서 'ㅎ'이 탈락한 'ㅁ'가 합쳐진 말이다. '-대'는 형용사 및 동사의 어간 다음과 동사 및 지정사의 시제형태소 'ㄴ, 는, 었, 겠' 등에 연결되어 '-대, -ㄴ대, -는데, -었는데, -겠대'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1) -데
 가. 그가 그런 말을 하데.
 나. 경치가 과연 좋데.
 다. 신부가 예쁘데?

(2) -대
 가. 그 여자 예쁘대(예쁘다고 해).
 나. 그 사람 오늘 떠난대(떠난다고 해).
 다.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데(읽는다고 해).
 라. 그 사람은 학생이 아니었대(아니었다고 해).
 마. 집에 있겠대(있겠다고 해).
 바. 범인을 보았대(보았다고 해)

문.2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정답] ③

[오답해설] ① 도외시 하다 → 도외시하다

② 대리전으로 밖에는 → 대리전으로밖에는('밖에'는 부정 의미의 서술어 '않아'와 호응하는 조사)

④ 회복될 지 → 회복될지(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을 표시하는 어미 '-르지'는 붙여 쓴다.)

문.3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③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④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정답] ②

[정답해설] ‘한하다’는 ‘어떤 조건, 범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다.’라는 뜻으로 ‘~에’의 형태로 씀.

무료입장은 장애인에 한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안에 도착한 서류에 한한다.

문.4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정답] ②

[정답해설]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① 일이 처음과 나중에 뒤바뀜
 ② 일의 근본 줄기는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잡힘

[오답해설]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구명하여 자기의 지식을 확고하게 함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음.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뜻

문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노둔하고 여윈 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하고 조심조심 금방 넘어질 듯 여겨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할 일이 적었다. 발굽이 높고 귀가 쫓긋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의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떻겠는가?

- 이곡, '차마설(借馬說說說)'-

- ①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 ② 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③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정답해설] 본문에는 '비교'의 설명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해설] 우의적이란 다른 사물에 빗대어 은연 중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

[작품 감상의 길라잡이]

‘설(說)’은 한문 문체의 하나로 대체로 ‘해(解)’ 또는 ‘술(術)’의 뜻인데, 곧 사물의 뜻과 이치를 해석하면서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의견을 세워서는 상세하고 쉽게 풀어 나가는 글이다. 이런 문장의 체제는 한문 문체의 하나인 ‘논(論)’과 비슷하다. 그러나 ‘논’은 정밀, 명쾌를 주안(主眼)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설’은 우의적(寓意的)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차마설(借馬說)’이란 ‘말을 빌리는 일을 논한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세히 말하면 ‘말을 빌리는 일에서 유추하여 알 수 있는 세상살이의 이치에 대해 논한다.’라는 뜻이다. 크게 보아 이 글은 4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단계는 본문의 첫 단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을 빌려 탄 경험을 사실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단계는 둘째 단락으로 남의 것을 빌린 경우가 아닌 본인 소유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추리한 것이다. 셋째 단계는 ‘그러나 사람이~말할 것이 있겠는가?’까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빌린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사용하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나면 낭패를 보는 일을 서술하여 일반화하고 있다. 넷째 단계는 ‘맹자가~넓히노라.’까지로, 셋째 단계를 이어서 맹자(孟子)라는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총괄적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결국 이 작품에서는 작자가 말을 빌려 탄 경험에서 자신이 깨우친 것을 적고 있다. 작자는 외물(外物)에 대한 심리 변화가 자기 소유물일 경우 더욱 극심하다고 지적하고 본래 자기 것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빌려 온 것뿐이니, 소유에 대해 올바른 관념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 내용 정리 ▣

1. 갈래 : 고대 수필, 설(說)
2. 성격 : 체험적(경험적), 사색적, 교훈적, 반성적
3. 제재 : 말을 빌린 경험
4. 표현상 특징
 - (1) 유추의 방법을 통해 개인적 체험을 일반화(보편화)하여 인간의 올바른 도리를 깨우치고 있다.
 - (2) 체험적 사실을 논거로 하여 현상을 해석하고 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3)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에 신뢰를 더하고 있다.
5. 출전 : 《가정집》 (이곡의 문집)

문10.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①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 ③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 ④ 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정답] ④

[정답해설] 본문은 익숙한 대상을 설명한 뒤 이에 빗대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추리하도록 설명한 방식으로 ④가 이에 해당하는 유추이다.

[오답해설] ① 연역적 추론 ②는 대조 ③은 귀납적 추론(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문11.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하나에 백 원씩 쳐주마.
-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쳐지네.
-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 ④ 오는 길에 쳐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정답] ① 쳐주마 → 쳐주마(치+어 주마)

[정답해설] 쳐주다

[오답해설] ② 쳐지다: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다 / 감정 혹은 기분 따위가 바닥으로 잠겨 가라앉다 / 문드러져 떨어지다.

③ 쳐대다: 함부로 불에 대어서 살라 버리다. / 함부로 자꾸 대 주다. / 마구 대다.

④ 쳐박히다: 매우 세게 혹은 함부로 막 박히다 / 마구 쑤셔 넣거나 푹 밀어넣게 되다 / 일정한 곳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

문12.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 ③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 ④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정답] ④

[정답해설] '보인다'는 눈으로 '보다'의 의미가 살아 있는 본용언이다. (40대처럼 젊다 + 40대처럼 보인다)

[오답해설] ① (동사 뒤 '-어 오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의 뜻인 보조동사 ② (동사 뒤 '-어 버리다')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아쉬운 감정이나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③ (동사 뒤 '-어 주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문13.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 ②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 ③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결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 ④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정답] ②

[정답해설] 나머지는 모두 반의관계이다.

문14.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左顧右盼)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버렸다.
- ②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시도하고 있다.
- ③ 그 친구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 ④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이다.

[정답] ④

[정답해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오답해설] ① 좌고우면(左顧右盼):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② 암중모색(暗中摸索):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③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문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동(三冬)에 ㉠베옷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뉘도 썬 적이 없지마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① ㉠: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 ② ㉡: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 ③ ㉢: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 ④ ㉣: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정답] ②

[정답해설] ‘눈비’는 화자의 시련과 고난, 고생스러운 삶 등을 나타내는 시어로 화자와 중심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 아님

[오답해설] ① ‘베옷’은 화자가 벼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포의지사(布衣之士)=포의한사(布衣關士)]

- ③ ‘서산’은 임금 계신 곳을 의미하고 화자는 ‘암혈(巖穴)’(=은거지)에 있다.
- ④ 화자는 임금의 승하 소식에 슬퍼하는 눈물을 통해 감정을 직접 표출하고 있다.

【전문풀이】

추운 겨울 동안에도 베옷으로 겨우 몸을 가리고 깊은 산속 움막집에 묻혀 눈비를 맞으며 살아가니,
 (벼슬을 아니하며 평민으로 청빈하게 살아가니)
 구름에 가린 햇살조차도 썬 적이 없건마는, (임금의 은총을 입은 바 없지만)
 그래도 해가 서산을 넘어가니 (임금께서 돌아가셨다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문16.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랑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어‘살구’, ‘자-’, ‘파랑-’에 ‘개-’, ‘-ㅁ’,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 ② 면도칼, 서릿발, 신동이, 장난기
- ③ 깎두기, 선생님, 작은형, 햇바지
- ④ 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탉

[정답] ①

[정답해설] 장군감[장군감]

[오답해설] ② 신동이: 나이가 신이 넘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파생어), 서릿발[서리뿔], 장난기[장난끼].

- ③ 깎두기(파생어), 선생님(파생어), 햇바지(파생어)
- ④ 시나브로(단일어)

문17.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③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

[정답] ①

[정답해설] 과거와 차별성을 가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인문학이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 %, 중복응답)

인터넷의 순기능	88.4	59.0	46.6	13.1	12.9
	다양한 정보의 습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교육 및 여가 활용	다양한 의견의 장	다양한 동호회 참여 및 활동
인터넷의 역기능	84.3	83.9	56.2	16.1	10.2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성인 음란물 유통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반국가 행위

- ①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 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정답] ④

[정답해설] 인터넷이 역기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문 19.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보 기</p> <p>이용악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혼자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날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p>
<p>눈이 오는가 ㉠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p> <p>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p> <p>연달린 산과 산 사이 ㉡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p> <p>잉크병 얼어드는 ㉢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p> <p>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 이용악, '그리움' -</p>

- ① ㉠은 자신이 떠나온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 ② ㉡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 ③ ㉢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 ④ ㉣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정답] ④

[정답해설] 화자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잠이 들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잠'이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은 아니다.

[작품해설]

성격 : 독백적, 연가풍, 애수적

표현 : 수미상관(首尾相關)의 구조

제재 : 고향 작은 마을과 그 가족들, 함박눈

주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향한 그리움

특징 : 시인의 전기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창작됨,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그리움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문 20.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액자’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년이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는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 ① 유명 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든다. - '성공:습관'
- ②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 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책 : 장난감 블록'
- ③ 로댕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댕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 '돌:손'
- ④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 '내면 : 옷차림'

[정답] ④

[정답해설] 답답한 느낌이 들던 그림을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것이 액자의 힘인데, 이것은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과 같고, 이와 같은 관계는 ④이다.

[총평]

1. 비문학의 강세(7) + 다소 쉬운 문제 출제
 - 1) 핵심정보파악(1)
 - 2) 내용일치(2)
 - 3) 쓰기(2) - 자료활용 = 수능형(?)
 - 4) 순서배열(1)
 - 5) 내용전개방식(1) = (유추)
2. 문학의 약진+고정패턴(4)
 - 1) 고전수필(1) - 이곡 '차마설' (표현 및 발상)
 - 2) 현대시(1) - 이용악 '그리움'(시어의 의미)
 - 3) 현대수필(1) - 소재의 의미 관계
 - 4) 고전시가(1) - 시어의 의미
3. 이론문법의 심화(3)
 - 1) 합성어 vs 파생어(1) -
 - 2) 본용언 vs 보조용언(1)
 - 3) 적절한 조사의 쓰임(1)
4. 규범문법의 약화(3)
 - 1) 던 vs 든 / 데 vs 대
 - 2) 처 vs 처
 - 3) 띄어쓰기
5. 어휘(3)
 - 1) 의미 관계(1)
 - 2) 한자성어(2)